

지역특산물 교환 판매하기로 합의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시 삼도1동과 교류 활발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장 박왕근)는 주민자치센터간 교류확대방안 협의와 지역특산물 교환 판매,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2박3일간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다.

연세순 동장을 비롯 1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박3일간 일정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교환해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전통축제 또는 시민의 날 등에 상호 방문하여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동사무소 내에 지역특산물 안내 전시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초등학교 4학년~6학년 10명 이내로 홈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여름방학때는 포천동에서 삼도1동을 방문하고 겨울방학때는 삼도1동에서 포천동을 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자매결연지 알람방을 개설하여 상호간의 주요동정 및 자치센터 운영현황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게시하여 알리기로 했다.

포천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5월19일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와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시 삼도1동은 모두 5천147세대 인구는 1만4천144명이며 면적은 제주시의 0.5%인 1.3km이며 18개동 12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13명, 주민자치위원은 27명이 활동 중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포천 특산물인 포천쌀 160kg을 포천단위농협으로부터 기증받아 삼도1동에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동 주민자치센터는 양 주민자치센터간 교류확대방안 협의와 지역특산물 교환 판매,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2박3일간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다.

내촌면 교통문제 解決士 전병호 옹

내촌-서울間 버스노선 신설 一等功臣

내촌에서 한번 승차로 청량리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지난 3월 2일 개통돼 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버스노선 개통의 숨은 일꾼은 내촌에서 두 번째 고령자인 전병호 옹(89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옹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광릉내까지 가서 광릉내에서 다시 서울행 버스를 갈아 타야하는 불편과 버스요금도 더 많이 지출되는 등 주민들의 고충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 옹은 처음에는 지역 몇몇 사람한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자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과천 제2청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접 방



문했다. 청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책임자를 만나 자세하게 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그 후 남양주시청과 포천시청, (주)선진시내버스를 수 차례씩 방문해 얻어낸 값진 결과의 미가 깊다. 버스노선신설로 주민들과 학생들은 서울을 왕래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 경동시장에서 출발해 광릉내에서 1001번 환승 시에는 무료로 승차할 수 있으며 내촌-서울발 (주)선진시내버스의 출발지는 현재 내촌 어린이집(보건지소)앞이며 운행간격 시간은 30분대와 50'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소하리까지 운행은 아직 검토중이다.

슬하에 1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전 옹은 내촌경로당 창설과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이지만 내촌초등학교에 지금까지 수년간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등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사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한 봉사정신과 지역 사랑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지역治安 우리가 담당한다”

소흘읍 영삼자율방범대 115명 대원



임동호 대장

2004년6월 영삼자율방범대를 창설했다.

‘영삼’이라고 하면 前김영삼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말에 대해 임동호 대장은 “사실 영삼이라는 말은 축석령의 령(嶺)에 3개의 뜻을 나타내는 삼(三)을 더해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포천시에서 외진 곳이다. 그러나 보니 포천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범인들이 도주하는 장소로 이용되던 장소로 활용되었다. 또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해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사소한 쯤도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3개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 영삼자율방범대를 탄생시켰다.

자율방범대 창설이후 이 지역 치안질서 유지는 물론 마을 애경사에 각 마을이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등이 발벗고 나서 대소사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같은 활동으로 주민들간의 친목과 단합이 잘되어 있고,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흘읍 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3개리 주민은 대략 3천여명. 이 지역은 세심한 경찰치안이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지역민들이 합심해 2004년6월 영삼자율방범대를 창설했다.

영삼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봉사자로서 주민을 보호하자 ▶봉사자로서 항상 솔선수범하자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키자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자 ▶봉사자로서 주민의식을 갖자는 근무수칙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

방범대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 자체차량을 구입해 7명으로 편성된 1개조씩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관내지역을 2차례 순찰활동을 한다. 한번 순찰하는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버스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3개리는 협소하고 불편한 도로가 많아 차량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긴급차량을 호출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이같은 활동 외에도 방범대원들은 불철 산불방지 활동, 겨울철 제설작업,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다.

방범대는 창설당시 각 리별로 거출한 금액과 대원들의 회비 등 주민 순수예산 3천만원으로 차량과 피복 등을 구입해 활동하고 있다.

허승환 기자 form66@paran.com

포천시 ‘시민만족 1004(천사) 운동’ 추진

포천시는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소의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민만족 1004(천사) 운동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 800여 공직자는 휴일을 이용해 연간 1004분(약17시간) 이상,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포천시는 ‘시민만족 천사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부서별로 5~10인 이내의 소규모 봉사 동아리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천시 자원봉사센터(www.pcv.org)와 연계해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 공무원들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중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양로원 등과 결연을 맺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온라인 직원광장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와 활동사진, 체험후기 등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 통장도 개설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ie@naver.com

고도의 집중력으로 忠孝禮義 정신 함양

해동검도 포천본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

(사)세계해동검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해동검도 포천본관(관장 권기동)이 포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16일(일) 오후 2시부터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지역의 해동검도 활성화와 해동검도인들의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 및 관원의 시범경기, 연합심사와 검도시범경기를 실시한다.

검을 사용해 고도의 집중력을 요

하는 해동검도는 충(忠), 효(孝), 예(禮), 의(義)를 근본정신으로 내공을 위주로 하는 한국고유의 무예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수련할 수 있는 호흡법과 명상,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찾는 운동 중의 하나이다.

해동검도는 현재 세계 50여개 국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 600개, 세계 400개의 도장에서 100만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다. 해동검도는 태

권도의 품새와 비교할 수 있는 60여 가지의 검법, 겨루기에 해당하는 격검, 격과와 같은 배기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호구를 쓰고 타격을 위주로 하는 일본 검도와는 기술과 형태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해동검도는 수련시 보통 나무검을 쓰고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단자가 되면 진검을 사용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의 선두주자

선진고속관광(주) 일동면에 문 열어

선진고속관광(주)(대표이사 이은성), 선진1급정비공업(주)(대표이사 서수덕)이 쾌적한 교통, 안전한 운행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일 포천시 일동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약 25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주민과 경북대학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선진고속관광(주)과 선진1급정비공업(주)이 그늘에 계열사 발전

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진그룹은 포천을 비롯해 의정부, 인천, 일산, 남양주, 동두천, 하남시 등 경기지역에서 약 2천여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계의 선두주자로 쾌적한 교통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관내 경북대학교 재휴로 통합버스로도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1급정비공업(주)은 버스 및 대형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시의 잠재된 교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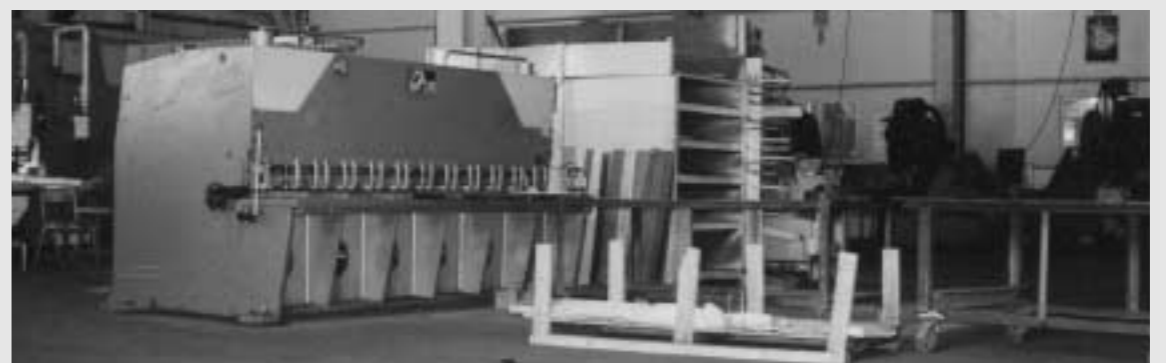
선진고속관광(주), 선진1급정비공업(주)이 쾌적한 교통, 안전한 운행을 목표로 지난 1일 포천시 일동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진고속관광(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축의금이나 화환을 일체 받지 않았으나 꽃이 성의를 표현하겠다는 방문객들로부터 20KG 쌀 1포대씩 기증받아 선단초등학교 급식소에 보내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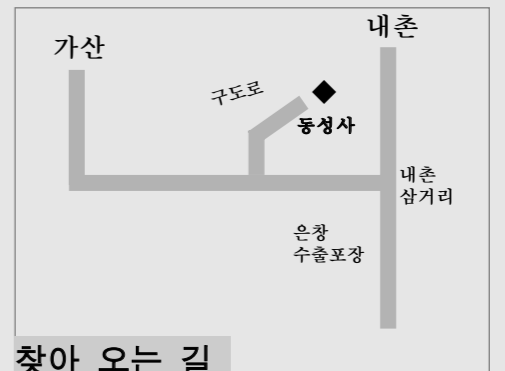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오디오 장식장, 인테리어 소품생산의 선두주자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